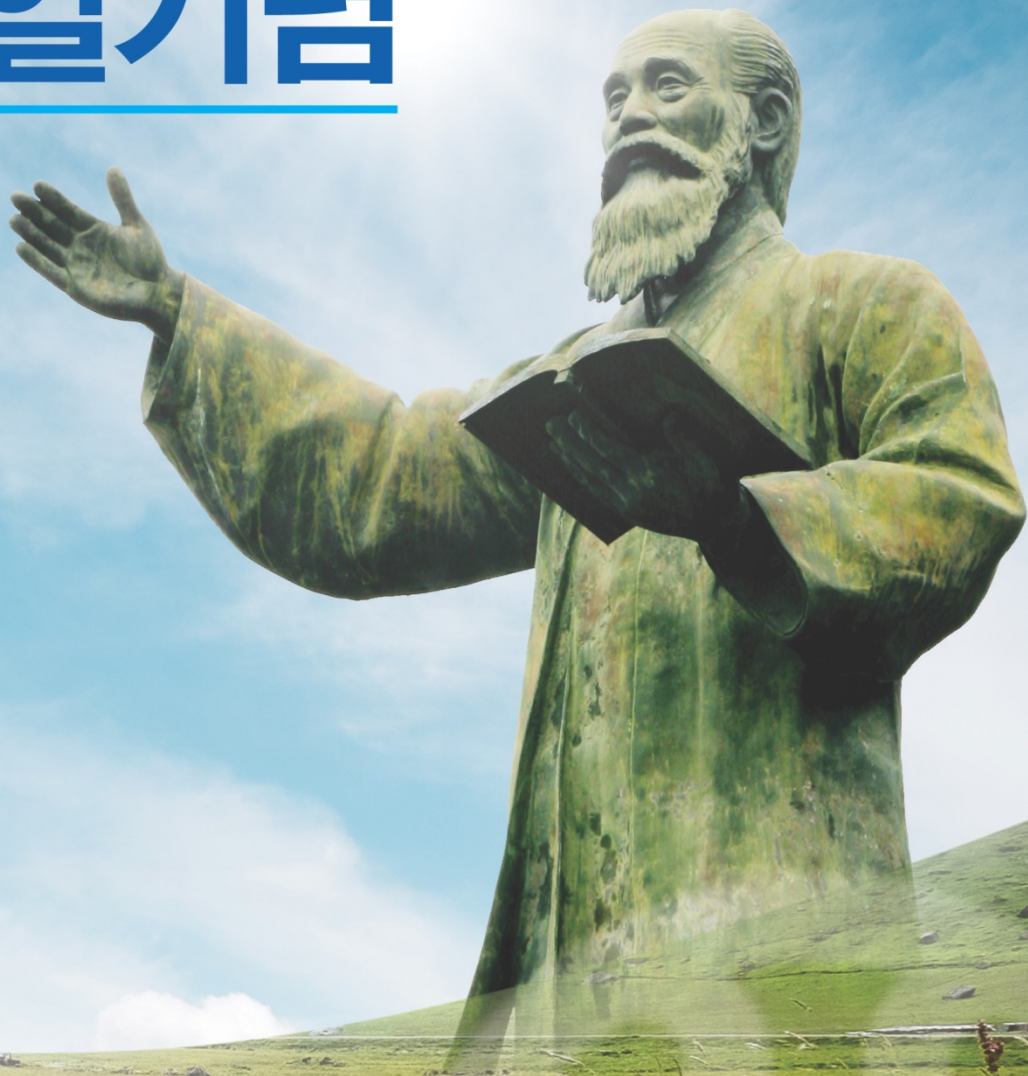

제157주년
지일기념



포덕 161(2020)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57주년

地 日 기 념



포덕 161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 제29장 지일기념가	14
해월신사 법설_ 삼경	17
해월 최시형 신사 약력	20
해월신사 존영	22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삼경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29장 지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사인여천 문화행사]

- 문화공연
- 사인여천나눔

[제30회 미술인회 한마당전]

- 전시기간 : 8월 14일(금) - 23일(시일)
- 전시장소 : 수운회관 4층 전시실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월신사께서 도통을 이어받으신지 157주년이 되는 지일기념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뜻 깊은 날을 함께 경축하면서, 해월신사께서 형극(荊棘)의 길을 걸으시면서 초지일관 무극대도를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해 정성을 다하신 그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교단중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월신사께서는 은도시대(隱道時代)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

면서 시천주(侍天主)의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해월신사의 고난의 역정은 한마디로 천명(天命)의 수행을 위한 순교적 고행이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대신사께서 득도하신 이듬해인 신유(辛酉)년에 입도하시어 불과 2년만인 포덕 4년 8월 14일에 도통을 전수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문식(文識)이 뛰어나지도 않은 평범한 농부였던 해월신사가 도통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신사께서 한결같이 성경신을 체행하는 신사님이 천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신앙을 하고 도를 닦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공경과 믿음입니다. 대신사께서는 “우리 도를 요약하면 성경신(誠敬信) 세 글자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해월신사 역시 “성경신에 능하면 성인되기가 손바닥 뒤집기 같이 쉽다”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학들은 처음에 입도식을 할 때 한울님을 영원히 모시겠다고 굳게 맹세한(一番致祭 永侍之重盟) 그 초심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 왔는지 내 몸에 모신 한울님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도통을 전수받으신 후 포덕 6년 10월 28일 검곡에서 대신사의 탄신향례를 거행하실 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바로 ‘귀천타파(貴賤打破)’의 법설입니다. 여기서 해월신사께서는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위(人爲)로써 귀천을 가리는 것은 한울님 뜻에 어긋나느니라.”고 설파함으로써 인간평등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하는 계급적 신분사회에 대한 일대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큰 획을 그었던 동학혁명을 비롯해서 3·1운동, 어린이운동, 신문화운동 등의 사상적 연원은 바로 이러한 사인여천의 평등사상에서 비롯되었음

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해월신사께서 민중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해월신사께서 이처럼 민중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신사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들어 실천하신 도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입도 후 추운 겨울에도 찬 샘물에 들어가 목욕재계하고 수련에 정진할 만큼 수도연성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통을 이어받은 후 관에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변(竹邊)과 영양(英陽), 직곡의 박용걸의 집을 비롯해서, 갈래사(葛來寺) 적조암(寂照庵), 익산 사자암(獅子庵), 공주 가섭사(迦葉寺) 등 여러 곳에서 49일 기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수도연성을 시행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도연성의 힘이 하나

로 결집되어 동학의 저변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월신사께서는 동학을 쉽게 설법함으로서 암담했던 당시 민중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배움에 굶주린 남녀노소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극대도의 요체(要諦)인 시천주(侍天主)를 양천주(養天主)와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법설을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이를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해월신사의 일상이 곧 행도(行道)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道)는 고원난행(高遠難行)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일용행사(日用行事)가 도(道) 아님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道)란 면벽수련(面壁修煉)이나 고행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수한 개인의 독점물이 아니라 경천·경인·경물을 통해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일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당시 최빈국(最貧國)이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날 세계적인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교단도 중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도(道)는 용시용활 하는데 있나니 때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이는 죽은 물건과 다름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動則生 靜則沒)”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개혁정신과 동학혼을 되살려 때와 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지일기념을 통해서 ‘움직여야 산다’고 하는 해월신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교단 중흥을 위해 실천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교인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수도에 정진하면서 청결과 위생에 유념하시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해월신사께서 포덕 27(1886)년 4월에 “금년은 악질(惡疾)이 크게 유행하리니 도인들은 일층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특히 청결을 주로 하라”고 하면서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 준칙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콜레라’라고 하는 괴질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하는 사람이 괴질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는 말씀은 온 세상이 괴질에 시달릴 때에도 우리 동학도들은 성·경·신의 믿음으로 대처하였기에 온전할 수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설파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천도교를 갈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것입니다. 다시개혁의 중심에는 우리 천도교가 서 있습니다.

맑고 밝음이 몸에 있으면 그 아는 것이 신과 같으리라는 말씀 잘 헤아려 몸으로 행하여 자아 완성하는 스스로의 깨어남이 다시 개혁의 주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정부와 교단의 방역체제를 잘 시행하여 코로나를 극복하시고 한울님의 감응으로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심고하면서 기념사에 대합니다.

포덕 161(2020)년 8월 14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29장 지일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
 2. 팔 월 십 사 일 --
 3. 팔 월 십 사 일 --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을 - 라 서 --
 2. 도 통 이 어 받 어 --
 3. 이 어 받 - 은 날 --

1. 어 든 세 - 상 명 랑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진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2.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3.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후렴

보 - 아 라 휘 날 리 는

궁 을 깃 - 발 을 -

이 - 땅 위 - 에 궁 을 꽃

피 워 를 - 보 세 -

三敬(삼경)

사람은 첫째로 敬天을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先師의 創明하신 道法이라. 敬天의 原理를 모르는 사람은 眞理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하면 한울은 眞理의 衷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敬天은 결단코 虛空을 向하여 上帝를 恭敬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恭敬함이 곧 敬天의 道를 바르게 하는 길이니, 「吾心不敬이 卽 天地不敬이라」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自己의 永生을 알게 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남을 爲하여 犧牲하는 마음, 世上을 爲하여 義務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敬天은 모든 眞理의 中樞를 把持함이니라.

둘째는 敬人이니 敬天은 敬人の 行爲에 의지하여 事實로 그 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敬天만 있고 敬人이 없으면 이는 農事의 理致는 알되 實地로 種子를 땅에 뿌리지 않는 行爲와 같으니, 道 닦는 자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道를 實行하는 者니라. 道家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降

臨하였다 이르라 하였으니, 사람을恭敬치 하니하고 鬼神을恭敬하여 무슨 實效가 있겠느냐. 愚俗에 鬼神을恭敬할 줄은 알되 사람은 賤待하나니, 이것은 죽은 父母의 魂은恭敬하되 산 父母는 賤待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別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恭敬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解渴을 求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敬物이니 사람은 사람을恭敬함으로써 道德의 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物을恭敬함에까지 이르러야 天地氣化의 德에 合一될 수 있나니라.

사람은 첫째로 한울을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 한울을 공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한울은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한울을 공경함은 결단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한울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

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한울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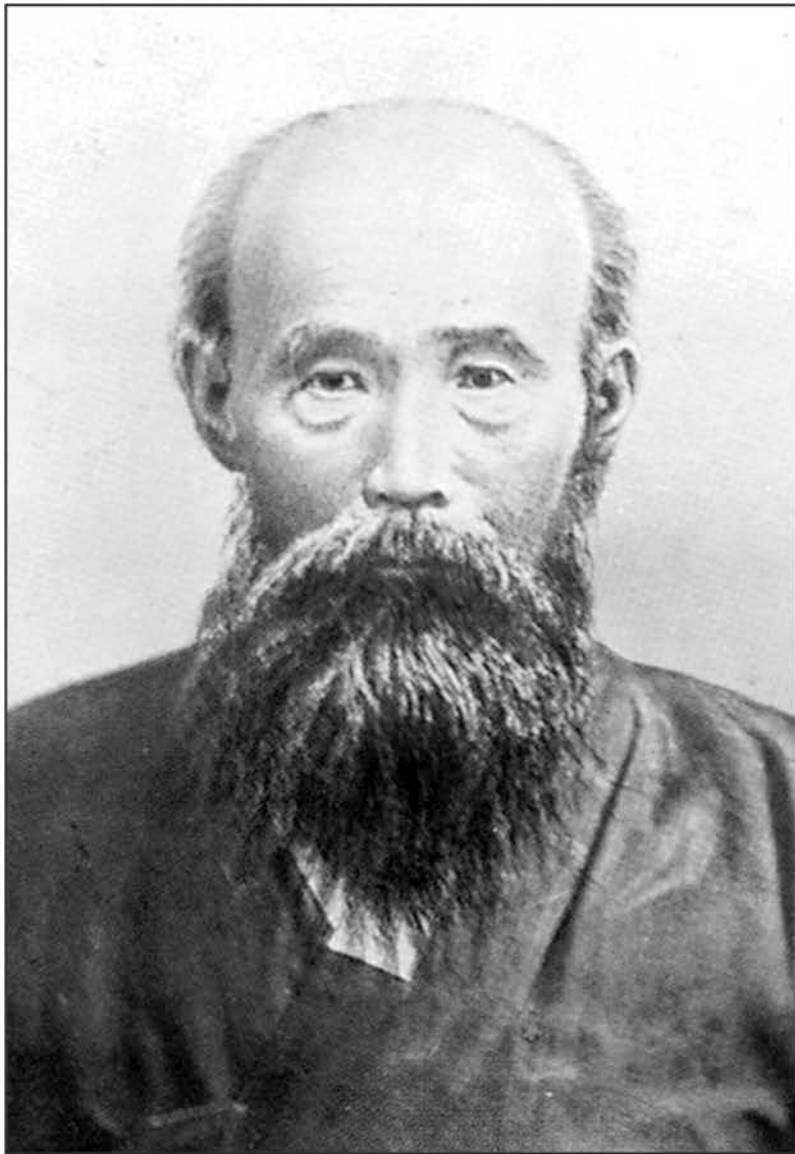
둘째는 사람을 공경함이니 한울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한울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니라. 도인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이르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풍속에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을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신사 약력

- 포덕전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부친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종수(宗秀),
모친은 월성 배씨(月城 裴氏).
본래 이름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0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입도하시다.
- 포덕 04년(1863) 7월, 대신사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으신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시다.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08년(1867)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12년(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13년(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시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샘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시다.
- 포덕 24년(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1,000부를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26년(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31년(1890) 11월, 금릉군 복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시다.
- 포덕 32년(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시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전에서 복합상소, 3월,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원평에서 3만명이 모여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해월신사는 옥천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혁명운동은 잠정상태로 들어가다.
- 포덕 38년(1897)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께 전수하시다.
- 포덕 39년(1898)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현에게 피체되시어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해월신사 존영

사인여천 (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주최·주관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